

시사원정대 NIE 2023-4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시사네컷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최신 이슈의 내용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알아봅니다.

주요 장면과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례를 현실감 있게 이해해 봅니다.

3)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친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5)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4월호 4주 (90분)		
학습 목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메타돌이 과거와 달리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본다. 체험형 영화관과 일반 영화관의 차이를 알아본다.		
활동 초점	- 중국 국가주석의 역할을 알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이례적인 이유를 알아본다. - 초기 사이버가수와 달리 대중과 기업이 메타돌에 주목하는 배경을 이야기해 본다. - 체험형 영화관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일반 영화관과 비교해 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 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59 시사네컷2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 확정	- 시진핑 3연임	20
	- 72~75 미디어 속 경제 - 웹툰 '메이브'로 본 경제 이야기, 내 최애 아이돌이 가상인간?	- 가상인간 - 메타돌	40
	- 112~113 엔터 특특 - 체험형 영화관 인기 영화관에서 '소리 질러!'	- 체험형 영화관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내가 좋아하거나 알고 있는 메타돌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20

[4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4월호 4주		
학습 목표	메타돌이 과거와 달리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본다. 체험형 영화관과 일반 영화관의 차이를 알아본다.		
활동 초점	- 초기 사이버가수와 달리 대중과 기업이 메타돌에 주목하는 배경을 이야기해 본다. - 체험형 영화관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일반 영화관과 비교해 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 퀴즈로 어휘 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72~75 미디어 속 경제 - 웹툰 '메이브'로 본 경제 이야기, 내 최애 아이돌이 가상인간?	- 가상인간 - 메타돌	20
	- 112~113 엔터 특특 - 체험형 영화관 인기 영화관에서 '소리 질러!'	- 체험형 영화관	10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내가 좋아하거나 알고 있는 메타돌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5

시사네컷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 확정

<어휘 UP>

3연임: 3번 연달아 직위를 유지함.

국가주석: 중국의 최고 지도자.

집권: 권세나 정권을 잡음.

포부: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계획이나 희망.

겨냥: 목표물을 겨눔.

<발문>

1. 중국의 국가주석 임기가 한 번에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하면 총 몇 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지 계산해 보자.
2. 한 사람이 오랜 기간 국가 지도자 자리를 유지할 때 생기는 장단점은 무엇일지 이야기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3연임... 2952명 만장일치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투표를 통해 표결에 참여한 295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국가주석에 올랐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최초로, 마오쩌둥, 덩샤오핑도 하지 못한 주석 3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투표 결과 발표 직후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 권위를 수호하며 법이 부여한 직책을 이행하겠다”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며 사실상 집권 3기를 시작했다. 이날 전국인대 투표 및 헌법 선서를 통해 국가주석에 공식 취임했고 2028년 3월까지의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당,

군, 정을 모두 장악한 명실상부한 ‘1인 지배 체제’가 완성됐다.

이날 국회의장 격인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중국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뽑혔다. 국가부주석에는 장쩌민 전 주석 계열 인사를 뜻하는 ‘상하이방’의 한정(韓正) 부총리가 선출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3연임에 성공한 국가주석이 됐다. 27년 동안 종신 집권했던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도 사망할 때까지 공산당 권력은 쥐고 있었지만 국가주석 자리를 유지하진 못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중국의 당·정·군 권력을 모두 틀어쥐면서 명실상부한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했다는 분석과 함께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만장일치로 뽑 국가주석 선출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실시된 국가주석 투표의 관전 포인트는 ‘만장일치 찬성’ 여부였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7인의 상무위원 명단 가운데 첫 번째(서열 1위)로 이름을 올리며 3연임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예상대로 표결에 참여한 2952명 전원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선출됐다. 이어진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이번은 없었다. 이 외에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국가부주석 등을 임명하는 투표도 모두 만장일치로 진행됐다. 앞서 시 주석은 처음 국가주석에 오른 2013년 투표에서는 찬성 2952표에 반대 1표, 기권 3표로 99.8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연임을 확정지은 2018년 전국인대에서는 2970명의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선출됐다.

이날 투표는 전국인대 대표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투표용지에 펜으로 반대와 기권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찬성일 경우에는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펜을 들고 움직이는 순간 반대나 기권이 명확히 드러나 만장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 주석이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취임식 격인 헌법 선서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가자 시 주석의 책사인 왕후닝(王滬寧) 상무위원(서열 4위)이 선 채로 박수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지도부 100여 명도 일제히 따라서 박수를 보냈다. 5년 전 2 연임을 확정된 직후에는 지도부 전원이 서 있기만 했다. 지도부의 충성 경쟁이 본격화된 신호로 볼 수 있다.

○ 명실상부 당정군 장악, 종신집권 길 터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정점인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며 권력을 다졌다. 이어 이번에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3회 연속 선출됨으로써 당과 국가, 군에 걸친 최고 지도자가 됐다. 임기가 보장된 2028년까지 최소 집권 가능하며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이후에도 집권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오쩌둥처럼 종신 집권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중국의 2인자인 총리 위상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블룸버그통신은 “총리에 내정된 리창(李強)은 역대 가장 약한 권한을 가진 총리가 될 것”이라며 “리창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0년 동안 런민일보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언급 비율은 6 대 1이었다”면서 “과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절에는 2 대 1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전국인대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장 격인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자오러지(趙樂際)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을 선출했다. 자오러지는 중국공산당 서열 3위 인물로 시 주석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국가 부주석에는 장쩌민 전 주석 계열 인사를 뜻하는 ‘상하이방’의 한정(韓正) 부총리가 선출됐다.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도 한층 강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FP는 “대담해진 시 주석이 양안(兩岸) 긴장을 고조시킨

뒤 대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오랜 야망을 실현할 때가 됐다고 결심할 수 있다”면서 “미중 간 직접 무력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2023-03-11]

미디어 속 경제

웹툰 '메이브' 속 경제 이야기

내 최애 아이돌이 가상인간?

<어휘 UP>

연재: 신문, 잡지 등에 글이나 만화 등을 여러 차례로 나눠서 계속해서 실음.

점령: 어떤 장소를 차지하여 자리를 잡음.

실체: 실제의 물체.

쇼케이스: 새 제품, 음반, 가수, 작품 등을 관계자에게 알리려고 여는 특별 공연.

자취: 어떤 것이 남긴 표시나 자리.

제약: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

은퇴: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

<발문>

1. 앞으로 어떤 모습과 성격, 콘셉트를 가진 메타돌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2. 메타돌처럼 미래에 가상인간이 어떤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사이버 가수는 옛말'...'불쾌한 골짜기' 넘어선 버추얼 스타들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가상인간(버추얼 휴먼)이 잇따라 연예계에 데뷔하며 기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광고 모델을 넘어서 이제는 아이돌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다.

1990년대 어설픈 그래픽으로 등장한 사이버 가수 '아담'과 달리, 최근 정보기술(IT) 업계가 주도하는 가상인간은 실제 인간과 같은 외형과 목소리로 대중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 국내 가상인간 시장 주도하는 게임업계...엔터 사업 확장

국내 가상인간 시장은 IT·게임업계가 주도하고 있다. 특히 게임사들은 컴퓨터그래픽(CG)기술과 게임엔진 활용에 능숙하다는 이점을 토대로 가상인간 개발에 적극적이다.

지난 25일에는 넷마블의 가상 걸그룹 '메이브'가 연예계 공식 데뷔를 가졌다. 넷마블은 2021년 8월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를 통해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가상 아이돌 매니지먼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2021년 10월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에 120억원을 투자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카카오엔터가 메이브의 그룹 콘셉트와 캐릭터·세계관 기획, 음원·뮤직비디오의 기획·제작·유통 등을 맡았다.

크래프톤의 '애나', 스마일게이트의 '한유아' 등도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가상인간으로 꼽힌다.

다른 게임사들도 가상인간 관련 제작사에 투자하거나 직접 개발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펄어비스는 북미 가상인간 제작사 '하이퍼리얼'에 투자했고, 카카오게임즈의 계열사 넵튠은 가상인간 아이돌 육성기업 '딥스튜디오'와 가상인간 걸그룹 이터니티를 보유한 '펄스나인', 가상인간 수아·하나리를 개발한 '온마인드'에 투자했다. 엔씨소프트는 가상인간 사업부를 설립했다.

이 외에도 싸이더스스튜디오엑스가 개발한 '오로지'와 LG전자가 개발한 '김래아', 롯데홈쇼핑이 개발한 '루시' 등이 있다. 네이버는 자이언트스텝과 공동 개발한 가상인간 '이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가상인간 본격 연예계 활동...아티스트 경쟁력은 미지수

이들 가상인간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슬은 지난해 5월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첫 데뷔부터 80만 뷰를 달성했으며 이후 JTBC 음악예능프로그램 '뉴페스타'에 출연하는 등 다방면에서 인지도를 높였다. 지난해 7월에는 자이언트스텝이 이슬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실제 촬영 장면 없이 100% 풀

3D와 언리얼 엔진으로만 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The new EQB' 사전 홍보영상을 선보인 바 있다.

한유아는 지난해 4월 싱글 앨범을 발매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이어 11월에는 두 번째 싱글 앨범 '너의 외로움이 날 부를 때'(When Your Loneliness Calls Me)를 발매하는 등 아티스트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만 한유아의 두 번째 싱글 앨범 음원 순위 35위가 가상인간이 기록한 최고 성적이어서 아직은 실제 인간을 넘어서기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가상인간 제작사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협력은 늘고 있다. 실존하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탈이나 사건·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을 덜 수 있고, 시간과 장소 구애없이 가상인간을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으로 가상인간을 활용한 새로운 광고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기획사 중 하나인 SM엔터테인먼트도 오는 3월 데뷔를 목표로 걸그룹 에스파 세계관 속 캐릭터 '나이비스'(naevis)를 가상인간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버스 전문기업 바오밥파트너즈는 최근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이돌스쿨과 가상인간 뮤지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개발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진범 바오밥파트너즈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으며, 가상인간의 엔터테인먼트 활동영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아이돌스쿨과 협업을 통해 가상인간을 활용한 K-콘텐츠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 가상인간 시장 2030년 649조원 전망...'불쾌한 골짜기' 없이 신산업 진출

가상인간의 활동 무대와 시장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이머진리서치는 글로벌 가상인간 시장이 2030년까지 5275억 8000만 달러(약 649조 3982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가상인간은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뉴스 앵커와 기자, 온라인 강사, 쇼호스트, 인플루언서 및 광고 모델, 안내원, 은행원,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별 적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사실적이고 정교한 얼굴을 만들어 내기 위한 3D 모델링 기술, 자연스러운 움직임 구현할 수 있는 모션 캡처 기술, 3차원 모델을 원하는 방식으로 변형하기 위한 AI기술 등의 발달로 실제 인간과 매우 흡사한 가상인간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과 어설피게 비슷해질수록 불쾌감을 느낀다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의 우려를 지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딥 러닝 기반 버추얼 인플루언서 제작사 이너버즈의 임정혁 대표는 "콘텐츠 시청자의 몰입감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작자와 프로듀서들이 의도한 콘셉트와 구도가 온전히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금은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기술의 산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너버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이 제약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3-01-27]

엔터 특특

체험형 영화관 인기, 영화관에서 '소리 질러!'

<어휘 UP>

미덕: 아름답고 가룩한 덕행.

대담하다: 담력이 크고 용감하다.

유치: 꺾어서 데려옴.

시청각: 눈으로 보는 감각과 귀로 듣는 감각을 아울러 이르는 말.

신조어: 새로 생긴 말.

<발문>

1. 체험형 영화관이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2.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영화관을 상상해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전투기 올라탄듯... 급상승 장면에 나도 모르게 의자 짹 잡았다

엔데믹 시대, 극장으로 돌아온 관객들이 체험형 특별관으로 몰리고 있다. 오감 체험이 가능하거나 압도적으로 큰 스크린을 통해 영화 속 세계에 온전히 몰입하려는 젊은층이 특히 많다. '탑건: 매버릭'은 이런 추세에 가속도를 붙였다.

○ 돌아온 관객들, 오감체험 영화 속으로

지난달 28일 '탑건: 매버릭'이 상영 중인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 내 한 상영관. 평일 낮임에도 144석 중 7개를 제외한 좌석이 모두 차 있었다. 전투기 편대가 산과 충돌할 뻔한 위기를 넘기고 급상승하는 장면에서 좌석이 기울어지며 흔들리자 관객들은 자신들이 급상승하는 듯 팔걸이를 짹 잡았다. 조종사들이 순식간에 몸무게의 9배에 달하는 중력을 받는 장면에선 의자의 진동, 바람 등 각

종 효과가 더해졌다. 조종사와 함께 중력을 버터내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함이었다. 적 적투기 편대가 기관포를 퍼부으며 미 해군 전투기 편대를 위협하고 이에 섬광탄(플레이어)을 투하하며 맞서는 공중전투 상황에선 천장 양쪽에 설치된 조명이 번개처럼 번쩍이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실제 공중전에 참가한 듯한 착각에 빠지기에 충분한 분위기였다.

이 상영관은 오감 체험 특별관인 4DX에 정면 스크린 외 좌우 벽면에서도 영상이 상영되는 스크린X 기술을 더한 4DX스크린관. 3개 면에서 영상이 나오는 데다 안개, 비, 물, 버블, 번개, 향기 등 21개 효과가 각 장면 특성에 맞춰 더해지면서 관객들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속에 들어간 느낌을 더 강하게 받게 된다. '탑건: 매버릭' 중 눈보라가 치는 설산이 나오는 장면에서 이른 무더위를 잊고 한겨울 눈발에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드는 것도 이 덕분이었다.

이날 영화를 본 박지민 씨(33·여)는 "상영 시간 내내 전투기를 직접 타는 느낌이였다. 영화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유대웅 씨(39)도 "4DX스크린관은 처음인데 전투기를 타고 충돌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앞으로 블록버스터 영화는 특별관에서 볼 계획이다. 이 영화는 IMAX에서도 한 번 더 보려고 한다"고 했다.

○ "영화로 들어오게 하라" 체험형 상영관 인기

엔데믹 시대를 맞아 관객들이 영화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달 영화관 관객 수는 1547만 명. 5월 1455만 명보다 100만 명 가까이 늘었다. 2020년 4월 월별 관객 수가 97만 명대까지 곤두박질쳤고, 불과 4월까지도 312만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극장가가 팬데믹 이전의 영광을 거의 되찾은 셈이다.

영화관으로 돌아온 관객들은 여러 상영관 중에서도 오감 체험이 가능하거나 압도적으로 큰 스크린이 있어 현실세계와 분리된 채 영화에 몰입할 수 있는 4DX스크린관 같은 특별관을 눈에 띄게 선호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상영관 내 취식 제한이 풀린 직후인 5월 4일 개봉해 엔데믹 특수를 가장 먼저 누린 마블 대작 '닥

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경우 개봉 1주 차 좌석 판매율은 CGV 기준 4DX관 47.3%, 4DX스크린관은 58.9%, IMAX관은 54%에 달했다. 일반관 좌석 판매율 27.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탑건: 매버릭'도 비슷했다. 개봉일인 지난달 22일부터 7일간 CGV 일반관 좌석 판매율은 16.1%에 그친 반면 4DX관은 42.2%, IMAX관은 41.1%였다. 실제 전투기를 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난 4DX스크린관 좌석 판매율은 64.7%까지 치솟았다. 롯데시네마의 대표적인 특별관인 월드타워 수퍼플렉스G의 5월 1일~6월 26일 좌석 판매율도 일반관에 비해 10.2%포인트 높았다. 영화관이 옛 영광을 되찾는 데 있어 특별관이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두 영화를 일반관에서 본 이들 중에도 "특별관 좋은 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 일반관에 간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젊은층에서 특히 특별관 선호 분위기는 두드러진다. 젊은층은 코로나19 이전처럼 영화관을 습관적으로 가기보다는 모바일 기기나 TV로 즐기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버스터 등의 콘텐츠에 한해 특별관을 찾는 모습이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영화관을 가는 것.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영화관을 찾아 '탑건: 매버릭'을 봤다는 성기훈 씨(31)가 선택한 곳 역시 특별관인 CGV 스크린X관이었다. 그는 "팬데믹 기간 작은 화면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시청하는 게 습관이 된 뒤부터는 드라마 장르처럼 조용한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가지는 않게 된다"며 "'탑건: 매버릭'은 영화관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주는 대작인 데다 3면 스크린에 둘러싸여 영상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으며 몰입하고 싶어 특별관을 찾았다"고 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팬데믹이 끝나도 당시 쌓인 OTT 시청 습관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관객들은 '영화관에 어울리는 영화'를 더 엄격하게 구분해 영화관을 찾게 될 것인 만큼 영화관 업계도 이에 맞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 '특별관 도장깨기' 'N차 관람' 열풍

젊은층의 특별관 선호 현상은 '특별관 도장깨기' 문화로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상엔 '탑건: 매버릭'을 특별관의 성지로 꼽히는 '용아맥(CGV 용산아이파크몰 IMAX관)' '영스엑(CGV 영등포 스크린X관)' '용포디(CGV 용산아이파크몰 4DX스크린관)' '수플G(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수퍼플렉스G관)' '코돌비(메가박스 코엑스 돌비시네마관)' '남돌비(메가박스 남양주현대아울렛 스페이스원 돌비시네마관)' 등에서 모두 봤다는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특별관별 장단점을 비교해 놓거나 특별관 내에서도 오감 체험이나 몰입에 가장 좋은 명당자리를 묻는 글도 넘친다.

지난달 28일 저녁 '탑건: 매버릭'을 4DX스크린관에서 보려고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찾은 관객 박예송 씨(30·여)는 "4DX스크린관에서 봐야 한다고 추천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단 이 포맷으로 영화를 한 번 보고 주 후반에 IMAX로 한 번 더 볼 계획"이라며 "표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운 좋게 괜찮은 자리를 구했다"고 했다.

'특별관 도장깨기'를 통한 'N차 관람'은 영화관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GV 일반관 관람료는 1만5000원이지만 IMAX는 주말 프라임석 기준 2만2000원이다. 5월 극장 전체 매출액은 전월에 비해 396% 폭증한 1507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달엔 관객 수 증가와 특별관 인기, N차 관람 추세에 힘입어 이보다 더 늘어난 158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이던 2020년 1월 1437억 원을 웃도는 수치다.

극장가의 전통적인 성수기인 이달에는 특별관 상영에 적합한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면서 더 높은 몰입도와 체험 효과를 원하는 관객들이 특별관을 더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각 영화관의 특별관 상영이 예정된 영화는 마블 대작 '토르: 러브 앤 썬더', 엘비스 프레슬리의 일대기를 그린 음악영화 '엘비스'를 비롯해 '도둑들' '암살' 등 천만 관객 영화를 두 편이나 만든 최동훈 감독의 복귀작 '외계+인', 국내 박스오피스 사상 최고 흥행 기록(1761만 명 관람)을 세운 영화 '명량' 후속작 '한산: 용의 출현' 등으로 화려하다. 팬데믹 이후 영화관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을 중시하게 된 젊은층이 특별관을 중심으로 극장에 몰리면서 극장은 팬데믹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영화관 업계는 이런 흐름에 따라 관객들의 체험 및 몰입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관 확장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전국 17개 극장에서 IMAX관을 운영 중인 CGV는 7월 충북 청주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에 IMAX관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대구에도 IMAX관을 개관한다. 롯데시네마는 세계 최대 스크린으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공식 인증을 받은 월드타워 슈퍼플렉스G관의 음향시스템과 좌석을 개선하는 등 관객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황재현 CGV 커뮤니케이션팀장은 “극장을 테마파크처럼 관객들이 신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건 꼭 필요한 전략”이라며 “영화관이 팬데믹 이후에도 유효한 공간이라는 판단에 따라 집이나 모바일 기기로 경험할 수 없는 극장만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 스크린 3개 이어 69m... 천장까지 연결 '꿈의 영화관'도 성큼
최근 영화 팬들 사이에서 '영스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영스엑'은 서울 영등포구 'CGV 영등포 스크린X관'의 줄임말. 스크린X관은 정면과 좌우에 스크린이 설치된 다면 스크린특별관을 말한다. 전국 50개의 스크린X관 중 유독 '영스엑'이 인기인 이유는 CGV가 CGV 영등포의 스타리움관을 '스크린X PLF(Premium Large Format)'로 이달 개조했기 때문이다. 기존엔 좌우 스크린에 영화관 벽면을 활용했는데 '영스엑'은 실버스크린을 설치해 화면의 선명도를 높인 것. 정면 스크린의 가로 길이는 25m, 좌우 스크린 길이는 각각 22m로 총 69m에 달한다.

상공에서의 비행 장면이 압권인 '탑건: 매버릭' 개봉은 '영스엑'을 향한 관객들의 관심에 불을 지폈다. 영화 커뮤니티에서는 '영스엑'과 '4DX' 버전의 '탑건: 매버릭' 관람 후기가 연일 화제다. 6월 29일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에서 만난 방준식 CJ 4D플렉스 콘텐츠비즈팀장은 “기존 스크린X관의 정면과 좌우 스크린 사이

각도는 90도였으나 영스엑은 이보다 15도 더 각도를 넓혔다. 관객 입장에서 더 확장된 화면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탑건: 매버릭'처럼 체험형, 몰입형 영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극장들이 직접 나서 '특수관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 나섰다. 공연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코로나 19로 공연장에서 공연을 직접 즐기지 못하자 스크린X, 4DX 기술을 접목한 콘서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 방탄소년단(BTS)을 시작으로 아이즈원, 블랙핑크, 몬스타엑스 등 아이돌의 콘서트가 극장용 콘텐츠로 제작돼 개봉했다. 음악에 맞춰 모션체어가 움직이고, 무대 분위기에 맞게 향기나 안개 효과도 들어간다. 좌우 스크린에 꽂 찬 관객은 실제 공연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방 팀장은 “콘서트 실황을 본 후 영화관에서 한 번 더 보는 게 팬덤 문화로 자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봉한 공포영화 '귀문'은 제작 단계부터 연출진과 극장이 협업에 나섰다. 기존에는 완성된 영화 콘텐츠에 CJ 4D플렉스가 후반 작업을 진행했지만 귀문의 경우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관의 효과들을 스토리보드 단계부터 협의했다. 방 팀장은 “영화를 처음 제작할 때부터 놀이공원의 귀신의집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자는 목표를 세웠다”며 “폐쇄된 수련원이 배경이기 때문에 좌우 스크린이 있는 스크린X관에서 감상했을 때 실제 수련원에 갇힌 듯한 공포감을 훨씬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4DX관의 경우 실제 그 안에 있는 듯한 촉감을 주기 위해 수련원 문이 열릴 때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거나, 피가 튀는 장면에서 물이 분사되는 효과를 넣었다.

극장 기술의 진화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스크린X관의 스크린 수는 정면과 좌우의 3개 면이지만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2020년 CJ 4D플렉스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에서 중앙과 좌우에 더해 천장까지 총 4개 면에 스크린을 접목한 '4DX스크린' 상영관을 선보였다.

4DX관도 변모를 꾀하고 있다. 4DX관의 경우 모션체어의 움직임 범위를 넓히고,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게 숙제다.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 '4DX스

크린' 상영관의 일부 모션체어에는 기존 6방향 움직임과 더불어 좌석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회전하는 기능인 '스웨이&트위스트' 기능이 접목됐다. 안개가 스크린을 가리지 않도록 하거나, 천장에서 눈이 더 은은하게 떨어지도록 하는 등 환경 효과도 개선하고 있다.

[동아일보 2022-07-02]